

코스모, Rutile 생산 때는 늦었다!

독점지위 누리며 Anatase에 안주 ... 원천기술 이전 쉽지 않을 듯

국내 유일의 TiO_2 (Titanium Dioxide) 생산기업인 코스모화학(대표 백재현)이 30년이 넘게 독점적 지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술적으로 손쉬운 Anatase형 TiO_2 만 생산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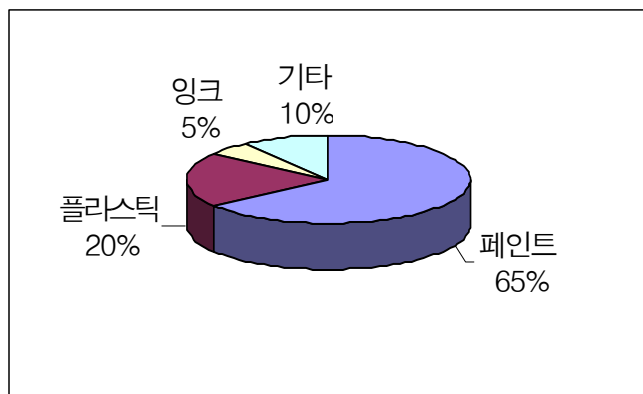
코스모화학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우기 위해 세계 최대의 TiO_2 생산기업인 DuPont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DuPont 측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Rutile형은 Anatase형에 비해 톤당 30만원 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색도가 밝고 동일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양도 Anatase형의 1/3에 불과해 국내 페인트기업들은 Rutile형을 선호하고 있다.

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Rutile형 TiO_2 를 생산하는 곳이 없어 DuPont과 Millennium, Huntsman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.

KCC는 Huntsman과 DuPont에서 월 1200-1300톤 정도를, 건설화학은 DuPont과 Millennium에서 월 450톤 정도의 Rutile형 TiO_2 를 수입하고 있다.

Rutile형 TiO_2 수요비중



한편, Rutile형 수입은 2004년 3월 단기적으로 반짝 늘었으나 이내 평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TiO_2 의 원료인 금홍석은 조암광물 중에서 굴절률이 가장 높고 산에 침식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용이나 자동차용 페인트의 백색안료로 주로 사용된다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5/13>